

잘못된 건강상식

간질은 유전된다

가장 수치스러운 질환의 하나가 흔히 지랄병으로 묘사되는 간질이다. 특히 간질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간질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으로 오해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간질 역시 위궤양이나 두통 등 다른 질환과 동일한 여러 질환의 하나일뿐 간질 자체가 환자나 보호자의 인격이나 체질, 유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실제 학계 보고에 의하면 전체 간질환자의 2~4%만이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게다가 간질은 약물과 수술로 얼마든지 조절 및 완치가능하며 평생 증상 없는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므로 결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불치병은 아니다. 간질아동의 부모들은 부끄러운 병으로 이를 감추기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하겠다.

고혈압보다 무서운 것이 저혈압이다

보통사람들의 정상혈압은 120/80정도다.

물론 이보다 수치가 높아 고혈압에 해당하면 약물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며 짠것을 먹지 않는 등 식사에도 주의를 해야한다. 문제는 정상혈압보다 낮은 저혈압의 경우로 가령 신체검사에서 저혈압 판정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이상 걱정을 하게 된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는 건강 속설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신체검사에서 정상보다 조금 낮은 혈압수치를 보였다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심장병, 뇌졸중같은 성인병의 발병률이 훨씬 낮고 평균수명도 10년 정도 길다는 연구보고도 있을 정도다. 평소 기력이 없고 안색이 창백하며 어지러운 것도 자신의 저혈압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며 저혈압 자체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혈압은 혈관손상을 줄이고 심장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임을 강조하고 싶다.

남성의 조루증, 발기부전증 등 성기능 장애는 정신적 원인 때문이다.

조루증이나 발기부전증 등 남성 성기능 장애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 주로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과거 정신적 원인이라 생각되었던 성기능 장애 중 상당부분이 실제 비뇨기과적 신체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이며 교통사고 등 외상,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항고혈압제 등 일부 약제의 복용도 정신적 원인 없이 성기능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대개 아침의 조조발기가 가능하거나 자위가 가능하고 성교대상자에 따라 발기가능한 경험이 있다면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된 성기능 장애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체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에 시달리는 남성이라면 정신적 원인 때문으로 속단하지 말고 먼저 비뇨기과적 진찰을 통해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다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하겠다

〈자료제공 :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